

“자전거 발전사는 인류 역사… 과학·배려의 아이콘”



인터뷰 자전거 전시회 개최
구자열 LS회장 겸 송강재단 이사장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展에 30년간 수집한 자전거 전시
6박7일간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 질주… 동양인 최초 완주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운송수단이다. 바퀴와 프레임, 안장과 핸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지만 인류에게 전해지는 감성은 그 이상이다.”
송강재단 이사장인 구자열 LS회장(사진)은 한 평생을 자전거와 함께 달려왔다. 지난 2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에 전시된 105대의 자전거는 모두가 30년간 모아온 소장품이다.
구 회장은 “자

전거에 대한 역사와 과학적인 발전과정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구 회장은 수집한 자전거 중 ‘블렌 쉬레그 드라이아네’를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이라고 꼽았다. 그는 “드라이스 남작이 1820년에 제작한 블렌 쉬레거는 독일 국보이기 때문에 소장할 수가 없었는데 운 좋게 프랑스에서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자전거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장품 중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로 영국에서 1870년에 개발된 ‘peyton&peyton’을 꼽았다. 제빙틀의 페달을 이용해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서 주행하는 자전거다.

구회장과 자전거와의 첫 만남은 어렸을 때다. 구 회장은 “어린 시절 미군부대에서 구입한 중고자전거로 동생과 둘이서 울과 대구를 일주한 경험이 자전거와의 강렬한 추억이었다” 회고했다. 목표점을 향해 갈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가도 끝까지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야말로 자전거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고 전한다.

구 회장의 ‘자전거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2002년 유럽 알프스산맥의 600여km 구간을 6박 7일간 질주하는 ‘트랜스 알프스 챌린지’를 동양인 최초로 완주했을 정도로 자전거 마니아다.

2009년부터는 대한자전거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구회장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상생활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로 도시와 자연을 즐길 때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해방감과 자유, 그는 그것을 자전거의 달콤한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자전거의 힘이다.

구회장은 끝으로 국내에도 자전거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구회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배려’다”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차량 운전자 간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 속에서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시청 앞 그늘막 놓고 서울시 vs 중구 ‘신경전’ 상반기 ‘나눔주차장’ 900면 추가 확보

중구, 시간부 한마디에 그늘막 설치
“구민 요구장소 아니다” 다시 철거
중구청장 “부끄러운 규정 반성”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있지만, 건너편 덕수궁 쪽에는 그늘막이 없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서구청장은 시청 앞에 4개의 그늘막이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시간부의 요구를 즉각 이행한 것.

중구청은 주민 거주지가 아닌 서울광장에 그늘막 설치를 지시한 시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가 부당한 요구가 아닌 공문을 보낸 정식 절차였다며 관계자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와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달 30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가 늦어지는 데다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이 많다”며 “서울광장 그늘막은 시간부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이다. 시의 눈치를 본 부끄러운 구정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구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4개의 그늘막을 철거해갔다. 그늘막 회수와 관련해 시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이모(34) 씨는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교가 중구에 있는 학생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면서 “중구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나, 생활권이 중구인 사람도 생각해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중구는 지난 30일까지 관내 50곳에 그늘막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늘막 설치 장소가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시청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 등 대로변 위주여서 구민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구는 예정된 설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해 그늘막 위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는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다.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구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해 생활권이 중구인 시민들



서울시는 중구가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그늘막을 철거한 자리에 그늘막을 새로 세웠다.

을 위해 그늘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같은 자리에 ‘1·SE OUL·U’가 새겨진 그늘막 4개를 설치했다. 대학생 이정현(25) 씨는 “그늘막은 많으면 많수록 좋다”면서 “광장을 지나 덕수궁 쪽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시청 쪽에는 그늘막이 있고, 건너편에는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가 그늘막 설치 협조 요청을 수용했다가 다시 회수해가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라며 “그늘막 설치 주체는 시가 아닌 각 구청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구청장은 눈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다가 수거한 그늘막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중구청 광장에 계속 두겠다고 했다. 구가 광장 내 그늘막 조성·철거에 투입한 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0

실적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강북구에 위치한 A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건물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을 상반기에 같은 나눔주차장 900면이 추가로 확보됐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

는 1만면을 돌파했다.

유류 주차공간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수질검사 모습.

/서울시

서울 주민센터 아리수 음수대 ‘먹는물 적합’

무작위 25곳 선정 수질검사 결과

서울시내 자치구 내 25개 동주민센터를 무작위로 선정,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물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의 세곡동 주민센터,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로 무작위로 동주민센터를 선정해 아리수음수대 수질을 검사했다.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0항목

등 총 17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물론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및 페놀류, 농약류 등의 건강영향 유기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 수돗물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모두 0.1~0.3mg/L 이내로 검출돼, 염소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수질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시원한 바람부는 한강으로 ‘북캉스’ 떠나요”

15일까지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으로 북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서울책공원에서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행사에는 서울·경기·전남지역의 헌책방 20곳이 참여해 고

서, 단행본, 전문도서, 어린이도서 등 10만권의 책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에서는 ▲헌책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헌책 장터’ ▲헌책으로 만든 대형 아치 ‘책의 문’ ▲1940~1980년대 교과서, 책결상 등을 전시하는 ‘추억의 시간여행’ ▲신영복 선생 저서 ‘필사체험’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판매하는 ‘일일 책방’ 등을 즐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한강 다리 밑 헌책방 축제 모습.

/서울시